

‘주민과 대화’ 성료... 건의·애로 409건 신속 해결

윤 시장 “시급현안부터 처리” 내달초에 계획보고회 예정 추진상황·결과 주민과 공유

나주시가 민선8기 첫 주민과의 대화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건의·애로 해결에 나선다.

나주시는 지난달 15일 금천면을 시작으로 3일 공산면까지 윤병태 시장과 20개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를 마무리했다고 7일 밝혔다.

총 9일 간 오전·오후 일정으로 이뤄진 주민과의 대화는 2023년 주요 시정 방향과 시책 브리핑, 읍·면·동정 보고, 대화·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윤병태 시장은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시정 브리핑, 동정 보고를 간소화하고 질의응답을 통한 건의·애로사항 수렴과 주민 정책제안 시간 비중을 최대한 늘렸다.

현장 대화와 서면을 통해 수렴된 주민 건의·애로사항은 읍·면·동별 평균 20건

이상으로 총 409건이 접수됐다.

소관 국별 통계 건수는 마을 안길, 농로 확·포장, 배수로 정비 등 소규모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안전도시건설국이 255건(62%)으로 가장 많았다.

관광문화환경국(14%), 미래전략산업국(9%), 농업기술센터(8%), 행정복지국(5%), 실·보건소(1%) 순으로 나타났다.

SRF(가연성 생활폐기물 고품연료) 열병합발전소 재가동과 광주전남발전연구원 분리, 2차 공공기관 혁신도시 우선이전, 퇴비사업장 악취 문제 등 당면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경로당 입식데이블 보급 확대, 체암나대용 장군 생가 일원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 자전거길 개선·파크골프장 신설, 119지역대 설치, 면 지역 반려동물 순회진료 등 복지, 농촌 정주여건 개선, 레저·체육 등 분야별 정책 제안도 눈길을 끌었다.

나주시는 주민 건의·애로사항에 대한 4월초 주민과의 대화 처리계획 보고회 개최를 통해 추진 상황과 최종 결과를 1



윤병태 나주시장이 민선8기 첫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건의·애로사항 409건을 신속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나주시 제공

대 1로 당사자에게 알려 시정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주민과 대화를 통해 제안해 준 의견을 검토해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부터 처리할 계획”이라며 “시간이 필요한 중·장기 현안·건의 사업은 관련 기관 간 협의

를 통해 차근차근 해결해가겠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주민과 대화에서 미처 말하지 못했던 생활 고충은 현장 중심의 발품소통 행정 창구인 ‘찾아가는 마을좌담회’를 통해 폭넓게 수렴하고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나주·조대봉·박송엽 기자

청렴 교육문화 풍토 확산 앞장 나주교육청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운자)은 교육공동체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 청렴문화 확산 행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나주교육청 직원 및 학교 교직원들의 청렴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실천 의지 강화를 위해 ‘청렴 릴레이 챌린지’를 지난 6일부터 박운자 교육장과 조경진 행정지원과장을 시작으로 청렴 문구를 작성, 사진 촬영 후 홈페이지(누리집)에 올리고 다음 주자(교장 및 행정실장)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학교장 및 나주교육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청렴 및 친절 관련 명언 등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청렴 문자 알리기’를 6일부터 실시해 12월까지 매주 월요일에 발송한다. 나주·박송엽 기자

청렴시민감사관 9명 위촉 나주시, 시민 권익보호

나주시가 청렴·투명한 시정 구현과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5기 청렴시민감사관’ 9명을 위촉했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제5기 청렴시민감사관’ 위촉식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청렴시민감사관은 시정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 권익보호 위한 제도다.

토목·건축·도시계획·환경·회계·세무 등 전문분야와 시민 불편사항 시정 건의 등 일반분야로 나눠 지난 해 11월 공모 절차를 거쳐 선발된 전문분야 5명, 일반분야 4명 등 총 9명을 위촉했다.

시민감사관은 ‘종합·부분 감사 참여 또는 자문’을 비롯해 ‘일상 시민 불편사항’, ‘공직자 청렴도 제고’,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등에 대한 시정 건의 역할을 수행한다. 나주·조대봉 기자

나주시향 제11회 정기연주회 나주시 문예회관

나주시는 9일 오후 7시 30분부터 문화예술회관에서 나주시합창단 제11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첫 무대는 독일 국적 ‘로베르트 알렉산더 슈만’ (1810-1856)의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연가곡인 ‘시인의 사랑’이다.

두 번째 무대는 ‘금잔디’, ‘목련화’ 등 봄꽃이 선사하는 아름다움을 노래한 가곡, 도종환 시인의 시를 토대로 작곡된 ‘새소리에 지는 꽃’, ‘담쟁이’, ‘달아 달아 밝은 달아’ 등 합창곡들로 꾸며진다.

사전 예약번호(010-4802-8460)로 티켓 매수, 이름을 문자로 전송하고 현장 티켓은 당일 오후 6시부터 선착순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나주·박송엽 기자



나주시가 이달부터 가로수 식재와 유지·관리, 녹지공간 청결작업, 교통섬 꽃식재 등을 통해 다시 오고싶은 거리, 사계절 꽃피는 도로경관 조성에 나섰다. 나주시 제공

가로수·녹지 정비 구슬땀 이달부터 꽃식재 등 조성

나주시가 가로수, 공원, 화단을 비롯한 도시 녹지 공간 정비와 새봄맞이 꽃단장에 한창이다.

7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번 달부터 가로수 식재 및 유지·관리, 동절기 녹지 공간 청결 작업, 교통섬 꽃 식재 등을 통해 다시 오고 싶은 거리, 사계절 꽃피는 도로 경관 조성에 나선다.

가로수·도시녹지 체계적인 관리와 아름다운 도시 미관 조성을 목표로 올해 13억 원을 투입, 연간 1만 3000여명의 유지·관리 인력을 고용하고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관내 77개 노선, 386km 구간 가로수 6만여본 수목별 특성을 고려한 전정 작업에 착수했다.

시민 보행, 차량 시야 확보에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 고유 수형을 보존에 중점을 두고 가지를 솜아내는 한편 간판 가림, 낙엽·은형나무 열매 처리 등 민원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유지·관리에도 힘을 기울인다. 나주·조대봉 기자

국립나주박물관, 17일 디지털 복합문화관 착공

첨단기술·문화영역 접목

국립나주박물관은 2025년 완공 예정인 ‘디지털 복합문화관’ 착공식을 오는 17일 박물관 후원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착공식에는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 윤병태 나주시장, 이상만 나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나주박물관의 디지털 복합문화관은 첨단기술을 문화영역에 접목한 복합문화공간으로 기존 본관 건물 공간적 한계로 제공할 수 없었던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연장, 어린이박물관, 미래형 수장고와 휴게 공간 등이 갖춰질 예정이며 나주 반남면 일대 고분군과 함께 다양한 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고품격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 디자인도 ‘차경·경치를 빌리다(고분을 내부로 끌어들이는 전통건축의 원리인 차경 개념 구체화)’로 고분과 자연 속 자리잡은 박물관 경관특성을 최대한



오는 2025년 완공 예정인 ‘디지털 복합문화관’ 조감도. 나주박물관 제공

반영해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전체 건물 연면적은 4393㎡로 주요 시설인 공연장은 300석 규모다. 어린이박물관을 비롯한 체험학습시설을 갖춰 많은 관람객이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미래형 수장고는 호남관에서 출토된 문화재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최신 설비와 보관 체계가 갖춰질 전망이다.

은하수 국립나주박물관장은 “2025년 완공 예정으로 17일 디지털 복합문화관 첫 삽을 뜨게 됐다. 완공되면 영상강 유역 고분군을 비롯한 전남도 고대 역사와 전통문화를 알리는 대표 문화기관으로 자연과 역사가 공존하는 관광산업의 중요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박송엽 기자